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서인선¹, 조옥선², 엄순옥^{3*}

¹온세미로상담센터 상담실장,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³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The Effect of Results of Early Youth's Self-Esteem and Depression is Life Satisfaction : Aggression Behavior Media Effect

In-Sun Suh¹, Ouk-Sun Cho², Soon-Ok Um^{3*}

¹Counseling Manager, Onsemiro Psychology Counseling Center

²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³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의 강남과 강북 및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일부를 선택했으며, 그 중에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중인 초기 청소년 29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구조방정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기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행동적 공격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행동적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행동적 공격성에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행동적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초기 청소년, 자아존중감, 우울감, 삶의 만족도, 공격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young people at an early age and the impact of media on behavioral aggressiveness during this process. To this end, a group of primary schools located in Jiangnan and Jiangbei in the Seoul area and the Nanjing Road in the city were selected and 290 early youths from grades 4-6 of elementary school were chosen as specimens of structural equ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firstly, the personal causes of early youth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negative (-) impact on liquidity aggressiveness. Secondly, depression has a nega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while action aggressiveness has no effect. Thirdly, the mobility aggression of early youth has a nega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 and there is a partial media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re is no media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project of improving youth early life satisfaction and reducing mobile aggression was proposed.

Key Words : Early youth, Self-esteem,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gg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Soon-Ok Um(yum5562@hanmail.net)

Received May 10, 2019

Revised June 5,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목표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행복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이에 국내의 언론에서도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 초기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높아졌다[1].

초기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올바르게 성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지나친 성적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지나친 경쟁과 또래와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2].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으로 위기가정의 증가, 학대나 방임문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 등 새로운 사회 환경요인과 맞물려 초기 청소년들 간의 소외감, 고립, 스트레스는 열등감, 자아존중감 저하, 행동적 공격성,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2].

이러한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동적 공격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성장 과정에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며 심리 사회적 부적응적 요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다[2].

여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이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과도기로 학교 교육과 또래 집단과의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며 호기심이 많고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충동성이 강한 시기이다[3].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분법을 기준으로 연구 보고한 Jung[4]의 연구를 참고하여 9세에서 13세까지를 초기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 중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11-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후 시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기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와 과제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이고 사회의 성실한 성원이 되기 위한 근면성이 발달하는 단계라고 하였다[5]. Piaget[6]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행하는 시기로서 보존과 분류의 개념이 형성 되는 단계이다.

이와 관련한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존중, 평가적 태도를 뜻하며 개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체계와 이에 수반되는 감정으로 정의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및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써 인간의 행동양상과 감정, 동기부여, 성취감, 대인관계에 폭넓게 영향을 미침으로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7-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나 감정 조절능력이 향상되고 또래관계 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고, 공격성은 낮아진다[10]. 자아존중감은 초기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이후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연관이 매우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심리적·정신적인 측면을 살피는데도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개념이다[11,12].

한편 우울감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나 자신감의 저하, 성격의 변화로 근심이 많고 슬픈 감정이 지속되며 삶에 대한 흥미가 없고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를 말한다. 우울감은 기존 연구에서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3].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우울감은 공격성과 정서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우울감이 증가하면 공격성이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울증상이 감소하면 공격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14-20].

행동적 공격성이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타인을 해치려는 광범위한 행위로 정의된다.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21,22]들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품행장애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서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기 청소년기의 행동적 공격성은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나, 위협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을 지키기 위한 촉발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한 강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행동적 공격성은 우울감, 자아존중감과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23-25].

기존연구에서는 우울한 초기 청소년의 대부분은 행동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우울감과 공격성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생활의 전반적 측면에서 실패감과 부적응을 경험하며, 대인관계에서 소외나 부적응, 약물 남용에 취약하며, 자살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28].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 행동적 공격성만

으로 초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초기 청소년들에게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같은 감정은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 행동적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초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면 행동적 공격성을 감소시켜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면 공격성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관련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후기 청소년인 중학생·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고 그 원인관계에 있어서도 교우관계, 부모애착관계나 부모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비행행동, 건강 등 생활전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29-31]. 초기 청소년기는 사회에 적응을 준비하는 결정적 단계이지만 한국의 초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 현상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1]. 이는 학습부담에 대한 열등감, 우울감, 자아존중감 저하로[2] 비행 등 행동특성으로 공격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들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들 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그 연구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최근 초기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행동적 공격적 현상에 주목하여 초기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아존중감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행동적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셋째, 우울감이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행동적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3월에 서울지역의 강북구 강남 및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일부를 선택했으며, 초기 청소년 집단 중에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자기기입식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연구의 목적, 향후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담임선생의 도움으로 재학생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설문지 응답은 무기명이고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조사대상은 비 확률 표집인 유의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나누어주고 290부를 회수하였지만, 불성실한 응답은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273부 활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자아존중감

본 척도는 Rosenberg[32]가 개발한 것을 Korea University[3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10문항이지만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34]에서 리커트 4점 척도로 변형해 사용했다.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경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과 보통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아존중감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4보다 작아 개념타당도를 떨어뜨려 제외하였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68로 높게 나타났다.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이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1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2.2.2 우울감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인 척도 Kim et al.[35]을 활용했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문항 중 역문항인 '큰 불만 없이 생활함과 비교적 잘 지냄', 문항은 역코딩해 분석하였다.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 하루 미만부터 4점 매우

5-7일'로 이루어졌다. 우울감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냄과 큰 불만 없이 생활함'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4보다 작아 개념타당도를 떨어뜨려 제외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67로 높게 나타났다.

2.2.3 행동적 공격성

Lee[36]는 초등학교용 공격성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하위요인은 행동적 공격성(16문항), 분노감(6문항), 적대감(8문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의 행동적 공격성을 묻는 16문항을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척도 5점이며, 5점 '매우 그렇다'부터 1점 '전혀 아니다'로 설계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원 척도에서 .92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966로 나타났다.

2.2.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Kim et al.[37]이 개발한 척도로 시는게 즐겁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며,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함 등 3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부터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설계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82로 높게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초기 청소년의 행동적 공격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1.0과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행동적 공격성과 개인요인인 자존감과 우울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행동적 공격성, 개인요인인 자존감과 우울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Amos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간접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analysis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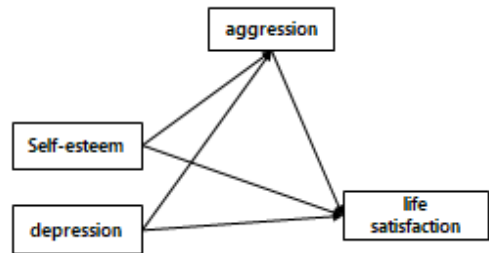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3.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초기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145명(53.1%), 여학생 128명(46.9%)이며, 학년으로는 '초등 4학년'이 98명(36.3%)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 5학년' 89명(33.0%), '초등 6학년' 83명(30.7%)로 분포되어 있다.

주관적인 학교성적은 주로 보통이 139명(47.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잘한다' 102명(37.4%)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의 경우 '잘산다' 13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80명(29.3%), '매우 잘산다' 44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보면, '부모+자녀'가 196명(73.7%)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144명(5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은 '기타' 71명(26.7%), '가정주부' 58명(21.8%), 사무직 55명(20.7%)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45	53.1
	Female	128	46.9
School Year	Elementary 4 th grade	98	36.3
	Elementary 5 th grade	89	33.0
	Elementary 6 th grade	83	30.7

	Needs improvement	12	4.4
School Grade	Satisfactory	129	47.3
	Good	102	37.4
	Excellent	30	11.0
Economic level	Lower	10	3.7
	Middle	80	29.3
	Upper	139	50.9
	Very high	44	16.1
Family type	Parent and children	196	73.7
	Other	70	26.7
Father's occupation	Agriculture/Fishing/Forestry	3	1.1
	Self-employment	24	9.1
	Employee	144	54.5
	Profession	20	7.6
	Official(government employee)/soldiers/teachers	16	6.1
	Part-time/day labor	2	0.8
	Other	55	20.8
	Self-employment	18	6.8
	Office worker	55	20.7
	Profession	18	6.8
Mother's occupation	Official(government employee)/soldiers/teachers	39	14.7
	Housewife	58	21.8
	Part-time/day labor	4	1.5
	Technical	3	1.1
	Other	71	26.7

3.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초기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삶의 만족도, 행동적 공격성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평균값이 3.226(표준편차=.623)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우울감은 평균값이 1.396(표준편차=.623)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값이 4.169(표준편차=.843)로 높음을 볼 수 있으며, 행동적 공격성은 평균값이 1.934(표준편차=.901)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인 행동적 공격성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값이 절대값이 각각 3과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273)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1.00	4.00	3.226	.623	-.816	.497
2)	.41	4.00	1.396	.554	2.019	4.513
3)	1.00	4.00	1.934	.901	.988	-.180
4)	1.00	5.00	4.169	.843	-1.213	1.525

1) self-esteem, 2) depression 3) aggression, 4) life satisfaction

3.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은 Table 3과 같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감($r=-.484, p<.01$) 및 행동적 공격성($r=-.280,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삶의 만족도($r=.681, p<.01$)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r=-.532,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행동적 공격성($r=.220,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삶의 만족도는 행동적 공격성($r=-.559,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484**	1		
3)	-.280**	.220**	1	
4)	.681**	-.532**	-.559**	1

**p<.01

1) self-esteem, 2)depression 3)aggression, 4) life satisfaction

3.5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3.5.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전에 잠재변수와 잠재변수의 수, 그에 따른 측정변수들이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한다. 초기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삶의 만족도, 행동적 공격성을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카이제곱통계량)=1762.517, df (자유도)=734, $p=.000$ 과 다른 적합도 지수로 SRMR=.060, TLI=.867, CFI=.875, RMSEA=.072로 나타나 측정모형 적합도가 TLI와 CFI의 값이 .90보다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설명력 값이 .30보다 낮은 변수를 차례로 제거하고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타당도와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정 측정모형을 설정하게 되었다. 수정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chi^2=1059.082, df=458, p=.000, SRMR=.061, TLI=.903, CFI=.910, RMSEA=.069$ 등의 값을 보여 초기모형보다 적합도가 상승하여 모형이 적절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χ^2	df	p	SRMR	TLI	CFI	RMSEA
Initial model	1762.517	734	.000	.060	.867	.875	.072
Modified model	1059.082	458	.000	.061	.903	.910	.069

3.5.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된 초기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과 행동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Table 5 와 같다. 구조모형에서 적합도 지수는 $\chi^2=1020.977$, $df=457$, $p=.000$, $SRMR=.058$, $TLI=.909$, $CFI=.916$, $RMSEA=.067$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만족할만한 적정수준을 갖고 변수 간 경로계수의 유의도가 .05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적합도 지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확률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공격성을 낮추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beta=-.214$, $t=-2.683$, $p<.01$). 이는 초기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장점이 많다고 느낄수록 친구를 위협하는 행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청소년의 우울감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4$, $t=1.038$, $p>.05$).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eta=.385$, $t=5.094$, $p<.001$). 즉 초기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친구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beta=-.264$, $t=-4.317$, $p=.000$). 초기 청소년이 무엇인가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슨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매사 귀찮게 느껴질수록 시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걱정거리가 많아 삶의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행동적 공격성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eta=-.407$, $t=-8.148$, $p=.000$). 초기 청소년이 친구에게 시비를 건다는지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게 하는 행동적 공격이 자주 발생할수록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우울감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eta=-.264$, $t=-4.317$, $p=.000$). 즉 우울감이 높으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걱정거리가 많아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초기 청소년은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이 힘들고 세상에 홀로 있다고 느낌이 많이 들수록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조모형 결과와 추정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Fig. 2 와 같이 나타났으며,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동적 공격성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이 행동적 공격성을 9.1%로 설명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64.9%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E.	C.R.
Aggression	<---	Self-esteem	-.555	-.214	.207	-2.683**
Aggression	<---	Depression	.164	.087	.158	1.038
Life-satisfaction	<---	Self-esteem	.825	.385	.162	5.094***
Life-satisfaction	<---	Aggression	-.378	-.407	.046	-8.148***
Life-satisfaction	<---	Depression	-.459	-.264	.106	-4.31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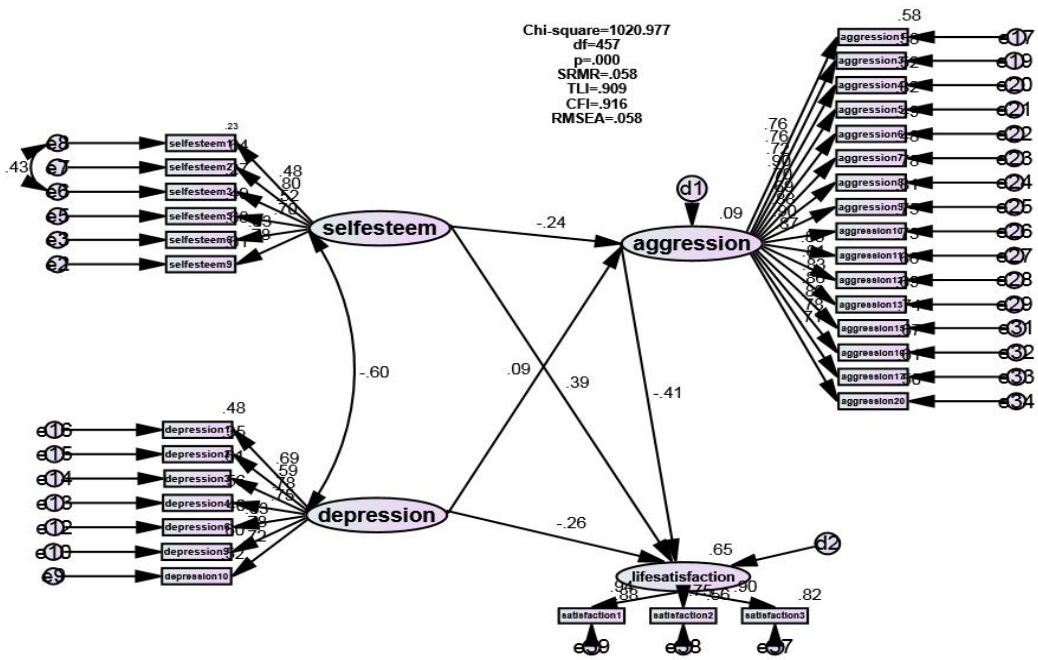


Fig.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밑바탕으로 선행변인들의 행동적 공격성에 대한 총 효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행동적 공격성에 직접효과($\beta = -.214$)가 있고, 행동적 공격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407$)가 있다는 것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beta = .385$)가 있으며, 행동적 공격성의 간접효과($\beta = .098$, $p < .05$) 및 총효과($\beta = .483$)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검증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행동적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를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우울감은 행동적 공격성에 직접효과($\beta = .087$)가 없고, 행동적 공격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beta = -.40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beta = -.264$)가 있으며, 행동적 공격성의 간접효과($\beta = -.036$, $p > .05$) 및 총효과

($\beta = -.300$)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모형의 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으로 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elf-esteem	→	Aggression	-.214*	-.214*	
Aggression	→	Life-satisfaction	-.407*	-.407*	
Self-esteem	→	Life-satisfaction	.483*	.385*	.098*
Depression	→	Aggression	.087	.087	
Aggression	→	Life-satisfaction	-.407*	-.407*	
Depression	→	Life-satisfaction	-.300*	-.264*	-.036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재학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중 27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초기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이존중감 및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이존중감 및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행동적 공격성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초기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사회 주역으로서 성장잠재력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 자이존중감, 행동적 공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이존중감 및 우울감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청소년의 자이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이존중감은 초기 청소년 개인의 삶에 긍정적 관련성을 보인 CooperSmith[7]의 연구와 Hater[8]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기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Yum & Moon[13]과 Ha[24]의 연구나, Ju[38]과 Jin et al.[39]의 연구과도 유사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은 유의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삶의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성인이 된 이후에 긍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사업이나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체계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부진한 초기청소년들에게 재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다양한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자이존중감 향상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40,41].

이와 같은 초기 청소년들이 자이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미시적 차원의 실천 방향으로는 건전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관

계는 서로에게 중요한 삶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자이존중감은 자녀의 자이존중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족향상성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입이 필요하다[2,40,41].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이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둘째, 자이존중감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행동적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초기 청소년이 자이존중감이 높으면 공격성을 낮추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이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Lee[10]의 연구와, Kirkpatrick et al.[21], Webster & Kirkpatrick[22] 연구 보고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태도를 갖고 자신감이 넘칠수록 친구관계나 사회관계에서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동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행동적 공격성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청소년이 어떤 촉발요인이 발생하여 또래 친구에게 시비를 건드리는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게 하는 행동적 공격성이 자주 발생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초기 청소년의 자이존중감은 행동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또한 행동적 공격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있다.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초기 청소년의 자이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행동적 공격성의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자이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이존중감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2는 유의성 검증되었으므로 채택되었다.

초기 청소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이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 행동적 공격성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하여야 한다[7-9,14-22].

한편으로 초기 청소년기는 교우관계나 교사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2], 초기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학습에 실패한 청소년들 역시 또래집단에서 소외되고 거부나 고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위주나 성취주의 형식의 경쟁적 교육정책이 아닌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자유롭게 적절한 사회관계,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더불어 오락활동, 여가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초기 청소년 관련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우울감이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있어 행동적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울감은 초기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동적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검증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영향요인과 행동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특정 지역 초기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와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여 전국 단위의 초기 청소년들의 종단적 변화 추이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H. Shim & K. H. Yi. (2018).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 Focusing on Gender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4(1), 199-225.
- [2] J. S. Oh & I. J. Chung. (2017). *Child Welfare*(3rd ed.). Seoul: Hakjisa.
- [3] J. E. Jung, K. S. Kim & H. S. Kwak. (2018).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Formation. Career Maturity,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9(1), 35-58.
- [4] O. B. Jung. (1998). *Adolescence: an Introduction*. Seoul: Hakjisa.
- [5] E. H.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6] J. Piaget. (1983). Piaget's Theory.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 294-356. New York: Wiley.
- [7] S. Coopersmith.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8] S. Hater. (1983).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Wiley.
- [9] M. Rosenberg.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development of the self*, 1, 205-246.
- [10] K. A. Lee. (2015). *Exploratory Study on Improvement Programs of Self-esteem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for Adolescents*. Department of Brain Educatio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 [11] H. S. Shin, E. J. Lee, L. H. Yu & M. Y. Bae. (2010).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in the Relations between Competence an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Studies*, 17(4), 103-125.
- [12] E. S. Jeong & J. Y. Lee. (2014).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elf-esteem Youth-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ference*, 7(2014), 473-489.
- [13] S. O. Yum & J. W. Moon. (2017).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 of Middle and Old Age Group on Depress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nflict.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25(2017), 53-76.
- [14] H. S. Kim & H. S. Kim. (1997).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Environment And Character Trait Among Delinquent Adolescents In Korea. *Pediatric Adolescent Psychiatry*, 8(1), 57-69.
- [15] H. Y. Kim. (2000). The Relation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the Delinquency of Adolescent under Probation a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hild Welfare*, 10, 9-31.
- [16] T. S. Kim & C. Y. Kang. (2008).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 *Psychotherapy*, 8(1), 85-100.
- [17] J. Y. Ju. (2009).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nger Expression Mode,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Study on Student's Life*, 22, 73-95.
- [18] J. Puig-Antich.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2), 118-128.

- [19] H. K. Kim & D. M. Capaldi. (2004). The Association of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Partners and Risk for Aggre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82-96
- [20] A. D. Marshall, A. Holtzworth-Munroe, J. E. Bates, D. Alexander & K. A. Dodge. (2002). Alongitudinal Analysi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sorders among Male and Female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In C. N. Farr (Chair), Bi-Directional Dating Viol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Finding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f Behavior Therapy, *Reno, NV*.
- [21] L. A. Kirkpatrick, C. E. Waugh, A. Valencia & G. D. Webster. (2002). The Functional Domain Specificity of Self-Esteem and the Differential Prediction of Aggression. *Journal Pers Soc Psychol, 82*, 756-767.
- [22] G. D. Webster & L. A. Kirkpatrick. (2006). Behavioral and Aelf-Reported Aggression as a Function of Domain-Specific Self-Esteem. *Aggressive Behavior, 32*, 17-27.
- [23] S. Y. Kim· C. R. Nho & Y. K. Son. (2016). The Effects of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7(3)*, 251-277.
- [24] M. S. Ha. (2019). Latent Class Transision Patterens and Influence Variables According to Longitudinal Development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Depression. *Middle Education Reserchon, 67(1)*, 123-154.
- [25] C. A. Anderson & B. J. Bushman. (2002). Human Aggression. *Psychology, 53(1)*, 27-51.
- [26] M. K. Keiley, N. Lofthouse, J. E. Bates, K. A. Dodge & G. S. Pettit. (2003). Differential Risks of Covarying and Pure Components in Mother and Teacher Report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Across Ages 5 to 14.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3)*, 267-283.
- [27] N. R. Marmorstein & W. G. Iacono. (2001). An Investigation of Female Adolescent Twins with Both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3)*, 299-306.
- [28] O. B. Jung. (1998). *Adolescence: an Introduction*. Seoul: Hakjisa.
- [29] E. H.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30] J. Piaget. (1983). Piaget's Theory.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pp. 294-356). New York: Wiley.
- [31] J. M. Sung. (2016). The Longitudinal Factors on Depression in Korea Adolescents.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18(4)*, 93-111.
- [32]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Inc.
- [33]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s. (2000). *Psychogram Handbook I*, Seoul: Hakjisa.
- [34]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https://www.nypi.re.kr>.
- [35] K. L. Kim, J. H. Kim & H. T. Ho. (1984). *Brief Psycho-Diagnosis Examination Guidelines*. Seoul: Central Institute of Integrity.
- [36] E. A. Lee & S. M. Cheon.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ggression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77-495.
- [37] S. Y. Kim, J. T. Im, S. O. Kim, S. H. Park, S. L. Yoo, J. Y. Choi & G. Y. Lee. (2006).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Survey 1, Verification of Measurement Indicators in Results. The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 [38] Y. H. Ju. (2019).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 Self-Esteem in Single-Parent Family Predictors. *Journal Youth Welfare, 21(1)*, 135-164.
- [39] H. M. Jin, B. S. Park & S. W. Bae. (2011). The Imformal of Labeli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Delinquency-Focusing on Path Analysis. *Journal Adolescent Welfare, 13(2)*, 121-148.
- [40] S. G. Lee.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hild Welfare, 59*, 115-150.
- [41] S. H. Hong, S. O. Jung, Y. L. You, J. I. Kim & J. E. Han. (2019). The Performance, Success Factors, and Limitations of the Dream- Start Program in G-City, Gyeonggi-do : A Qualitative Study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hild Welfare, 65*, 89-122.

서 인 선(In-Sun Suh)

[정회원]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과 (문학사)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상담학석사)
- 2015년 1월 ~ 현재 : 온세미로심리상담 센터 상담실장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 E-Mail : isys9221@hanmail.net

조 옥 선(Ok-Sun Cho)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장애
- E-Mail : sun16070@naver.com

엄 순 옥(Soon-Ok Um)

[정회원]



- 2010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노인
- E-Mail : yum5562@hanmail.net